

필리핀 결혼이주 여성의 한국 결혼생활 현상에 관한 연구

김 현 경 · 신 동 주*

다문화가정육아지원연구소 · 덕성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A Study on the Filipino Marriage and a Migrant Women's Married Life

Kim, Hyun Kyoung · Shin, Dong Ju*

Institute for the Multi-Cultural Families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Duksung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a migrant women's married life. The study examined migrant Filipino women's married lives, motives for marriage and migration to Korea, and their married life experiences. The results showed that these women get married to Korean men in pursuit of an economically better life to support their family in the Philippines through marriage migration. As for Filipino women's perceived difficulties in married life, they indicated hardships with redrawing the boundaries of nationality, as well as their husbands' faults or bad habits which are different from what they expected before marriage. Other difficulties mentioned were the peculiar culture of living with parents-in-law, and general difficulties in married life. This study showed that marriage migration results not from external pressure or motives but ultimately from their own decision in a social and cultural context. It was also implicated that Korea's superior position to the Philippines in international economic power has an effect on family relations. The boundaries of nationality are redrawn according to their married life. In addition, it was revealed that the Korean born children of migrant mothers who divorce because of difficulties in married life are in a very poor situation as their national identity depends on their mother's future marriage relations.

Key words: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 women, married life experiences

I. 서론

“2세 영어공부 필리핀 신부라면 걱정 없어요”(경기도 A시 외곽도로에 걸린 결혼중매 광고문건)

“필리핀 여성의 장점이라면 지구상의 단하나 이혼이 없는 나라, 영어회화를 가르쳐 남

편 수입보다 더 많은 수입으로 윤택한 생활...”(상업적인 결혼중개업체 광고 사이트 문안 양혜우 2005 재인용)

종종 “베트남 신부 도망가지 않아요, 베트남 신부랑 결혼하세요” 라는 문구는 보아왔지만, 2세 교육이나 영어 교육열풍을 국제결혼에 끼워 중용하는 광고 문구는 근래의 결혼이주 여성이 처한

접수일: 2008년 9월 25일 채택일: 2008년 10월 26일

Corresponding Author: Kim, Hyun Kyoung Tel: 82-2-783-5825 Fax: 82-2-783-5825

e-mail: peacenme@hanmail.net

한국 사회에서의 왜곡된 위상이나 결혼생활에서 겪게 될 역경을 미루어 짐작하게 한다.

우리나라에 국제결혼의 시초는 한국전쟁 이후 미군과 한국 여성 간에 이루어진 국제결혼이어서 국제결혼을 바라보는 한국인들의 시각은 매우 부정적이었으나, 1980년대 후반 들어 외국과의 교류가 확대되고 중상류층 여성들의 국제결혼이 늘어나면서 국제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었다(유철인 1994, 1996). 1990년대에 들어서는 오히려 한국사회에서 주변부 남성들과 경제적으로 빈곤한 국가의 여성들과의 결혼이 급증하는 현상으로 반전되었다. 우리 사회 혼인 적령인구의 불균형으로 농촌과 도시 주변부 남성들이 외국인 여성들과 결혼하게 되면서 급속히 국제결혼이 증가하게 된 것이다(정기선 2007). 이에 따라 국제결혼 건수는 2001년 1만5천234건에서 2005년에는 4만3천121건으로 증가하였고, 2007년에 들어서는 8만7천964명의 외국인이 결혼을 통해 국내로 이주 하였으며 이중 97.6%를 아시아권 여성들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행정자치부 2007).

특히 필리핀 이주 여성들은 대다수가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로 필리핀어 이외에 영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들과 결혼하면 2세 교육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결혼중개업자들의 소개로 인하여 필리핀 여성과의 결혼이 크게 증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90년에 91명의 필리핀 여성이 한국 이주를 위해 배우자 방문 동거비자를 발급받았던 것에 비교하면 2000년에는 3,024명, 2001년에는 3,557명으로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남편의 폭력을 피해 달아나다 10층 아파트에서 떨어져 사망한 필리핀 여성 따따(PD수첩 2003년 4월 15일 방영)사건 발생 이후 필리핀 사회 내에 한국 남성과 결혼한 여성에 대한 학대가 문제화되고 있는 실정이다(김민정 2002; 윤형숙 2004).

필리핀 여성의 한국으로의 결혼이주 배경과 맥락은 필리핀 자국의 경제적 상황이나 가족 제도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필리핀 정부는 이미 1970년대 경제적 침체와 높은 실업률, 빈곤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 노동력 수출정

책을 추진한 이후 적극적으로 이주노동과 연관된 정책을 승계하고 유지하여 왔다. 필리핀 당국에서 보는 자국민의 해외 이주는 필리핀에 존재하는 실업문제를 해결해 주며, 이주노동자들이 보내오는 송금은 필리핀의 국가 재정에 크게 공헌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 결과 필리핀은 아시아 최대의 해외노동 송출국으로써 자국민의 이주 노동이 일의 내용이나 계약 조건이 좀 더 분명한 사회적 노동형태를 띠는다면, 국제결혼은 가족 재생산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성적 서비스와 가사 노동이라는 사적인 노동형태라는 관점에서 국제결혼은 가족 형태의 변형된 노동이주의 연장선상(윤형숙 2004)에 있다고 보는 관측도 있다.

하지만 단일 문화권이 아닌 다문화적 배경에서 이루어지는 이주결혼은 합법적인 절차에 따른 결혼관계의 성립이라는 외현적(外現的)인 의미 이외에, 내현적(來現的)으로는 이질적인 문화 수용에 대한 동의가 암묵적으로 요구되는 다차원적인 문화이행에 관한 의미 계약적 행위와도 같다고 볼 수 있다. 이 때 국제결혼 관계에서 수용해야 하는 상대문화의 범위는 배우자 국가에 대한 지식, 기술, 행동, 태도, 신념들의 유형과 인간 사회에서 세대로 전수되는 물질뿐 아니라 인간의 지성, 사회, 기술, 정치, 경제, 도덕, 종교 및 심미적 문화수행과 연관된 전 범위 모두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Pai & Adler 2001). 그런 면에서 국가 경계를 넘어 성립되는 국제결혼이란 성인 남녀의 심신과 문화의 합방(合邦)이자 결혼이라는 사회계약 체계를 통해 새로운 사회화를 이뤄간다는 의미에서 인간 삶의 하나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대 한국 사회의 국제결혼의 증가 현상은 증가 추세 만큼이나 문화접변을 촉매하고 문화 분화의 생산지 혹은 문화 격변(激變)의 장(場)을 형성한다는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국제결혼이 갖는 사회문화적 의미와 함께 결혼당사자들의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서로 간의 적절한 물문(物文) 교환과 이를 위한 전략이 구사되는 살아있는 문화 현장과도 같다(조성원 2004). 즉, 서로 다른 배경에서 성장한 성인 남녀가 배우자를 선택하게 되는 과정은 그저 단순하게 우연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라기보다는 상당한

수준의 숙고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는 사회적 교환이론에 기초하여 보더라도 모든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득을 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결혼을 위한 배우자 선택도 합리적이거나 계산적으로 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결혼에 따른 비용과 보상을 계산하여 자기가 치루어야 할 대가로서의 비용과 이득이 예상될 때 실제 결혼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국제결혼을 전제로 한 배우자 선택의 요인과 과정은 보상 추구의 과정(Scanzoni & Scanzoni 1981)과도 같다고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결혼 이주는 가정적으로 국제 결혼 과정을 통해 성립된 가족관계 속에 출신 국가 간 경제적 관계가 가정의 위계(位階)에 영향을 미치거나 가족 구성원 개개인의 국가 정체성 형성에 연루될 수 있다. 먼저 위계란 사전적으로 지위나 계층 따위의 등급을 이르는 것으로 결혼이주를 통해 성립되는 가족관계에 출신 국가 간에 존재하는 사회, 경제, 문화적 위계가 가정 안에 새로운 권력의 형태로 자리할 수 있다. 즉, 부부의 출신 국가가 갖는 문화·경제적 특성이 남성과 여성간의 가정 내 권력 배경이 되어 결혼 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로 인해 국제결혼관계는 공간적으로 가정 안에 새로운 힘의 관계로 전환될 수 있다. 이는 결혼이 상대 배우자의 사회적 경제적 가치가 충분히 고려되어 이루어지는 사회행위라고 볼 때 결혼할 상대 배우자가 같은 민족이 아니라면 국가 간 힘의 관계는 가족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적 배경이 서로 다른 남녀의 결혼은 국가 간의 경제적인 불평등함과 아울러 가정 내 문화의 구성주체인 부부에게 불균등한 권력관계(조성원 2004)로 이어질 수 있어서 국가 간의 경제적 지위에 따른 위계화가 부부관계에 전이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결혼이주로 인한 위계화 현상 이외에 결혼이주에 연관된 가족의 국가 정체성 재경계화에 관한 이슈는 이미 세계화와 관련된 인류학의 주요 관심사의 하나로서 지구촌의 이주화 현상으로 인해 국가의 경계선을 모호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과 연관되어 있다(김민정 2002). 이는 다문화 사회가 추구하는 통합의 가치는 궁극적으로 사회

전체의 동질화 과정을 추구하는 듯 하지만 사회 내부에서는 여러 민족의 혼합이 국가정체성 변형에 새로운 전기(轉機)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국제결혼이란 상대 배우자의 사회적 경제적 가치가 충분히 고려되어 이루어지는 사회행위이자 서로간의 적절한 교환이 이루어지기 위한 전략이 구사되는 문화 현장으로써, 결혼 이주여성의 결혼생활이란 다문화 가정을 형성한 이후 가족체계 내에서 경험하게 되는 역동적인 신체, 심리, 문화의 변화 과정 전체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국제결혼에 관한 연구 중 필리핀 결혼이주 여성의 결혼생활에 관한 연구들은 최근 김희주, 은선경(2007), 김민정(2007), 양순미(2006) 등의 연구자들을 통해 이루어졌다. 김희주, 은선경(2007)의 연구에서는 필리핀 결혼이주여성의 적응전략에 관한 사례연구를 통해 남편과의 갈등에 초점을 두고 연구되었고, 김민정(2007)의 연구에서는 한국 가족의 변화와 지방 사회의 필리핀 아내에 관한 연구에서 지방에 거주하는 필리핀 결혼이주 여성과 가족 구성원들의 생존전략에 대해 분석하여 필리핀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인 남성과의 부부관계가 구조적 불평등을 수반함에 대하여 지적하였다. 또한 농촌 국제결혼부부의 적응 및 생활실태에 대하여 중국, 일본, 필리핀 이주여성 부부 중심으로 살펴본 양순미(2006)의 연구에서는 필리핀과 일본 이주여성의 결혼생활 적응수준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필리핀 이주여성들의 적응도는 중국조선족 이주여성 적응 수준보다 낮았으며 다문화가정의 의사결정권, 가계비관리권은 대체로 남편에게 집중되어 있음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이 같은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필리핀 결혼이주여성들의 한국 결혼생활의 고충에 대하여 다루고 있지만 결혼과정에 대한 적극적 의사결정자인 동시에 자신의 결정에 대한 책임과 의무 이행의 주체라는 사실을 간과할 수 있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의 실제적인 삶에 대한 조명을 위해서는 결혼 이주여성의 결혼생활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 이외에도 삶의 주체자로서의 이주여성들의 결혼생활 현상에 관해 주의하여 보는 것도 중요하리라 여겨진다.

더욱이 결혼이주 여성의 결혼생활의 성공 여부는 이주 여성 자신은 물론 그의 남편 및 자녀들의 삶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Surra & Hughes 1997) 국제결혼이 증가되는 현 시점에서 국제결혼을 통해 가정을 이루는 결혼이주여성의 제반 결혼생활 현상에 대하여 이해하는 것은 사회통합을 위해 중요한 과제로 여겨지는 시점에 놓여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사회의 기초를 형성하는 가정(Simpson, Campbell & Berscheid 1986) 단위에 급속히 유입되고 있는 국제결혼 가정의 형성과정과 이주여성들의 결혼과정 속에 나타난 행위의 주체자인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생활 현상에 대한 이해는 매우 의미있는 주제라고 할 수 있다. 비록 이주여성들이 Constable(2003)이 지적한 것처럼 후진국 여성과 선진국 남성 사이에 남성의 경제력과 여성의 섹슈얼리티 및 가사노동간의 맞교환과 같은 측면에서 이루어졌더라도, 과거 결혼의 동기나 현재의 결혼생활의 전(全) 과정에 나타난 결혼생활에 관하여 분석은 향후 필연적으로 전개될 다문화사회에 대한 전망과 과제 해결을 위해 중요하리라 과제라 여겨진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체류 외국인 100만 명 도래와 함께 다문화 사회로의 급속한 진전을 보이는 현재 시점에서 한국 사회의 중요한 정책 대상으로 부각된 다문화가정의 결혼이주 여성(행정자치부 2007)들의 결혼생활과 연관된 제반 현상에 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질적 연구방법 중 대상자들의 결혼경험 현상의 의미와 본질을 밝히는데 적절한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통해 결혼이주여성들의 인식에 기초한 결혼생활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II. 연구 방법

1. 현상학적 연구방법

현상학은 실존하는 주관이 지니는 체험을 분석하는 학문(최경호·박인철 1986)으로 기존의 자연과학이 추구했던 실험실 안에서 행해졌던 실증적 패러다임으로는 설명할 수 없었던 복잡한 인간의 삶과 경험 세계의 의미와 가치를 밝혀내고자 하는 철학적 관점인 동시에 연구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곧 인간은 '설명되어야 하는 존재'가 아닌

'이해되어야 하는 존재'로 여김으로 현상학적 연구방법은 인간 삶과 연관된 주요 주제를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통해 경험의 의미와 본질을 찾아내는 것이다. 따라서 현상학적 연구는 어떤 선입견이나 이론적 개념들의 방해를 받지 않고, 연구자의 직관적 통찰을 통해 연구참여자들의 기술을 분석하여 인간적으로 경험된 현상의 의미를 밝히려고 노력하는 연구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신경림 199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량화하기 곤란한 인간의 심층에 있는 의식이나 행위의 동기 등을 이해하고자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통해 결혼생활 경험에 대한 결혼이주여성의 주관적인 경험에 부여하는 의미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2. 연구참여자의 선정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 선정은 질적 연구에서 주로 사용하는 의도적 표집방법을 사용하였다. 질적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연구참여자 선정 시, '적절성'의 원칙을 따른다. '적절성'의 원칙은 연구 주제에 대해 가장 적절하고 풍부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는 참여자를 알아내어 선택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생활 현상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이주여성 중 필리핀 결혼이주 여성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 이유는 이주 결혼자 중에서 전반적으로 경제적 수준이 한국보다 높은 일본이나 문화적 배경이 비슷한 중국과 조선족을 제외하고, 일상생활이나 문화면에서 한국과 차이가 있으며 최근 영어 사용권으로 국제결혼 대상국으로 주목받고 있는 필리핀 이주 여성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여 한국 남성과의 결혼생활 현상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 참여한 결혼이주여성들은 결혼이주여성이 전국 시도별로 고르게 분포(행정자치부 2007)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서울,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필리핀 결혼이주여성 총 12명으로서 연구협조에 동의하고 다음의 조건을 갖춘 자들을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첫째, 연구참여자는 결혼 전 필리핀 국적을 가진 자로서 한국 남성과 결혼하여 가족을 이룬 다문화가정의 주부로서 현재 결혼 상태를 유지하는

여성과 이혼 상태에 있는 여성 모두를 포함하였다. 둘째, 본 연구의 목적이 다문화가정의 결혼이주 여성 결혼생활에 대한 분석을 목적으로 함으로 최소한 2년 이상 결혼기간이 경과한 결혼이주여성들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 이유는 1998년 이후 국적법상 최소 거주기간 2년 이상이 경과하여야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아직 한국 국적 취득 최소일수에 충족하지 못하는 주부들은 제외하였다.

이에 따라 연구참여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제시하면, 참여자들의 나이는 27-44세 사이에 분포하였으며, 최종 학력은 고졸 5명, 초대졸 3명, 대학 졸업 4명이었다. 연구참여자들의 결혼기간은 최소 3년 7개월부터 13년 10개월 사이에 분포하였고, 한국 남성과의 결혼 방법은 소개 5명, 결혼중개소 3명, 종교단체 3명, 직접 만나 연애 결혼한 경우 1명이었다. 연구참여자의 결혼상태는 결혼유지가 7명, 이혼 4명, 별거 1명이었고, 자녀들은 1명에서 2명을 두고 있으며 현재 임신 중인 2명의 참여자도 연구대상자로 참여하였다. 연구참여자에 대한 일반적인 배경을 제시하여보면 다음 표 1과 같다.

3.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08년 4월 27일부터 9월 19일까지 연구참여자와의 심층 면접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심층면담에 참여한 국제결혼 여성들은 평균 체류기간이 3년 이상으로 한국어로 기초적인 의사표현은 가능하였으나, 면담과정에는 참여자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심중에 의도한 바를 솔직하게 표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한국어와 영어 모두로 진행하였다. 본 연구자들은 영어 전공하였거나 영어권에서 수학한 관계로 의사소통에는 어려움이 없었다. 면접 장소는 본 연구소가 위치한 G구의 이주민 지원센터 내 사무실이나 참여자의 집 등에서 이루어졌으며 면담내용은 연구참여자의 동의하에 녹음한 후, 연구참여자의 언어 그대로 필사하였다. 연구참여자로 진행된 면담횟수는 2-3회였으며 1회 면담 시 평균적으로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었다. 면담을 통해서 얻어지는 자료 수집은 자료수집의 중요한 원리인 ‘충분성’의 원칙에 따라 연구현상에 대한 충분하고 풍부한 이해를 위해 참여자들로부터 더 이상 새로운 자료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수집하였으며, 면담은 현상학적 연구에서 주로 사용하는 개방적이고 반 구조화된 질문 형식을 사용하였다. 예를 들면, 1차면담에서는 ‘어떻게 남편과 만나서 결혼하게 되셨는지 결혼 과정에 대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결혼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상황이 있었다면 말씀해주세요?’ 등의 질문을 하였고, 2차면담 이후로는 연구참여자들의 기술을 바탕으로 좀 더 궁금

표 1. 연구참여자의 일반적인 배경

구분	연령	학력	결혼기간	결혼방법	결혼상태	자녀	거주지역
참여자1	37세	고졸	13년10개월	결혼중개	이혼	아들1, 딸1	서울
참여자2	36세	초대졸	8년4개월	지인소개	이혼	딸1	서울
참여자3	33세	고졸	10년8개월	결혼중개	결혼	딸1	서울
참여자4	37세	고졸	11년	친구소개	결혼	없음	서울
참여자5	44세	대졸	7년6개월	통일교	결혼	딸1	경기
참여자6	36세	고졸	12년10개월	통일교	별거	아들1, 딸1	서울
참여자7	31세	초대졸	10년2개월	통일교	이혼	아들, 임신중	서울
참여자8	41세	초대졸	15년	공장에서	이혼	딸2	경기
참여자9	27세	대졸	3년7개월	친척소개	결혼	임신중	경기
참여자10	32세	대졸	4년9개월	지인소개	결혼	딸1	서울
참여자11	34세	대졸	9년7개월	친척소개	결혼	딸1, 아들1	경기
참여자12	31세	고졸	6년	결혼중매	결혼	딸1	경기

한 부분에 대해 ‘결혼 전 남편에 대해 알던 점과 결혼 후 실제와 달랐던 점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겠어요?’ 등의 질문으로 결혼생활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풍부한 의미를 드러내고자 하였다.

4. 자료 분석

자료의 분석은 전사하는 과정에서부터 순환적으로 이루어졌다. 첫 번째 분석과정은 심층면담을 통하여 얻어진 자료는 면담을 마친지 만 24시간 이내에 전사하여 기록 분석함으로써 이루어졌다. 그리고 전사기록을 읽으면서 텍스트가 담고 있는 메시지와 의도, 의미를 분석을 위해서는 Giorgi (1970)가 제시한대로 연구자들의 지식이나 경험에 의한 선입견이나 편견을 배제하기 위해 현상학적 환원(reduction)의 태도의 하나인 ‘괄호치기(bracketing)’를 하였다(Tesch 1990, 재인용). 즉, 연구자들은 과거 본인들의 임상경험이나 지식이 분석과정에 영향을 미쳐 연구현상의 본질을 방해하지 않도록 자신의 선 이해, 편견 등을 개인 일지에 기술하고 연구와 관련된 문헌내용 등을 메모해 둬으로써 이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하였다.

그리고 자료의 분석과정에서는 Lincoln과 Guba (1985)의 엄밀성 평가기준 4가지에 따라 연구결과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사실적 가치’는 양적 연구의 내적 타당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연구자들은 도출된 결과를 가지고 연구참여자들의 원래의 진술로 돌아가 그 내용이 일치하는지를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을 거쳤으며, 연구참여자들의 기술을 적절한 학문적 용어로 전환하였는지에 대하여 사회복지 전문가 2인의 검토를 거쳤다. 둘째, ‘적용성(applicability)’은 양적 연구의 외적타당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연구자들이 더 이상 새로운 주제가 나오지 않을 정도의 충분한 기술을 확보했다고 느껴질 때까지 면담을 수행하였다. 셋째, ‘일관성(consistency)’은 양적 연구의 신뢰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연구의 자료 분석과정과 절차에 대하여 질적 연구의 경험이 있는 교수 2인의 검토를 거쳤다. 넷째, ‘중립성(neutrality)’은 양적 연구의 객관성에 해당하는 것으로 연구자들은 과거의 경험이나 문헌적 지식이 연구에 개입되지 않도록

하였다. 이러한 구성요소들을 시간적 맥락에 따라 배열하여 결혼경험의 일반적 구조를 대상자들의 구체적인 경험적 진술과 함께 연구결과로 제시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필리핀 여성의 결혼이주 동기: 결혼에 대한 두 가지 기대

필리핀 여성들이 낯선 나라 낯선 땅으로 결혼이주를 결심한 배경은 각각의 경우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공통적으로 ‘가난에서 벗어나려고(3명)’, ‘부자되고 싶어서(4명)’, ‘외국 남성과 결혼하여 필리핀에서보다 잘 살려고(1명)’, ‘한국에서 잘 살려고(2명)’ 등으로써 참여자에게 공통적으로 결혼생활을 통해 이루고 싶은 코리안 드림(Korean dream)을 갖고 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꿈은 필리핀보다 경제적으로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살고 싶은 욕망과 가족을 도울 수 있으리라는 기대로 결혼이주를 결심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양복차림의 한국 남성: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결혼이주 여성은 자신들이 한 번도 밟아보지 않았던 이국땅에 사는 낯선 한국남성과 결혼하고자 했을 때 한국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접하기 보다는 결혼을 결정할 즈음에 한국 남성을 아는 주변 사람들의 권유나 결혼중개업자를 통해 소개 받은 사람의 국적이 한국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혼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미 주거지역 가까이에서 한국 남성과 결혼하여 불화나 폭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로 부터 듣거나 한국 남성에 관한 우려로 주변사람들로부터 결혼을 만류하는 경험을 하기도 하었다고 하였다. 하지만 연구참여자들은 결혼을 결정할 즈음에 소개받은 사람 중 필리핀에서의 현재 삶 보다는 조금이라도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희망이 한국 남성과의 결혼을 결심하게 하는데 작용하였다고 말하였다.

주변 사람들이 한국 남자와 결혼하지 말라고 말렸어요. 우리 공장사람들은 한국 남자에 대해 안 좋게 생각했어요. 한국 남자들이 여자를 때리고 술 먹고 책임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소개받은 남자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결혼했어요. 한국 남자가 돈이 많은 줄 알았죠(사례 1-1).

필리핀 여자들은 이런 생각 많이 해요. 한국 남자들과 결혼해서 정말 잘 살고 싶다는 생각이요. 가난한 필리핀에서보다 한국에서 잘 살고 싶었어요(사례 1-2)

나이가 자꾸 들어가고 주변에 있는 가난한 필리핀 남자와 결혼하고 싶지 않았어요. 한국 사람과 결혼해서 부자되고 싶었어요(사례 1-3)

필리핀 결혼이주 여성들은 한국에 대한 정보를 전혀 접해본 적 없이 시집을 오게 되기도 한다. 참여자들은 한국 남성과 결혼하는 필리핀 여성들이 주로 대도시보다는 외곽에 살아 다른 나라에 대한 정보의 접근이 어려운 환경에 살던 여성들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러한 점은 필리핀 여성과 한국 남성들 모두 자국의 도시 주변부나 농촌 출신이라는 공통점을 가지며 특히 필리핀 이주 여성들의 경우 한국 남성들의 경제적 지위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를 갖고 결혼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리핀 여자들은 외국 사람과 결혼하면 모두 잘 살 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필리핀 사람들은 외국 사람들 잘 몰라요. 필리핀에서는 양복 입으면 부자예요...그래서 사람들이 양복 입은 사람 보면 굉장히 부자인 줄 알아요. 필리핀 사람들은 더우니까 그냥 티셔츠 같은 것 입고 사니까요. 그런데 한국은요...와보니까 가난한 사람들도 양복 잘 입어요. 그래서, 한국 남자들이 필리핀에 여자들 만나러 올 때 양복을 입고 오니까. 우리 필리핀 여자들은 한국 남자 모두 부자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멋있는 사

진이나 선물 같은 것 가지고 와서 보여주니까 진짜 잘사는 줄 아는 거예요, 양복차림만 아니었어도.... (사례 1-4)

결국 필리핀 여성들은 양복 입은 한국 남성들이 잘 사는 사람인 줄 알았고 결혼하면 잘 살게 될 것이라 생각해서 시집을 왔다고 하였다. 한국 남성이 필리핀 여성과 만나기 위해 잘 차려입는 ‘양복’ 한 벌이 필리핀 여성에게는 자신이 처한 가난에서 벗어나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하는 역할을 하고, 한국 남성에게 있어서도 한국에서 주변부에 있는 취약점을 덮어주는 도구로 작용하는 셈이다. Scanzoni와 Scanzoni (1981)의 결혼과 관련한 사회적 교환이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결혼이주여성이 한국 남성과 결혼하게 되는 것은 단순히 우연한 사건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필리핀 여성 자신의 젊은 시절의 결혼을 통해 가난에 대한 보상 혹은 가족 지원 등의 필요를 채우고자 하는 동기로 한국 남성과 결혼하게 된다고 보여진다.

2) 돕고 싶은 나의 부모, 나의 형제

연구참여자인 필리핀 결혼이주 여성들은 한국 남성과 결혼하여 잘 살고 싶다는 생각과 함께 ‘우리 부모와 식구들, 모두 잘 살 수 있도록(2명)’, ‘도와주고 싶어요(4명)’ ‘도와줘야 해요(5명)’ 등의 용어로 표현하며 가족들을 당연히 도와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이는 결혼 이전부터 필리핀이 갖고 있는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부모와 가족들을 도와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희주와 은선경(2007)의 연구에서도 필리핀 여성들은 가족주의 문화가 강한 자국의 문화적 영향에 따라 결혼하기 이전부터 경제활동을 통해 부모님과 가족들을 원조하고 있었고 결혼 후에도 당연히 그러리란 기대를 갖고 한국 남성과 결혼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리핀 사람들은 한 사람이 잘 살면 모두가 같이 도와줘요. 가족 중 한 사람이 잘 살게 되면 모두 다 잘살게 되요. 필리핀 사람들은 모두 가족을 생각해요... 우리 필리핀

사람들은 “together”이예요(사례 1-5)

참여자들은 결혼의 동기를 묻는 질문에 경제적 이유로 한국 남성과 결혼하게 되었음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며 결혼이주여성 혼자 잘 살게 된다는 생각에 더해 결혼 이후 본국의 가족들을 돕게 될 것이란 기대 역시 감추지 않았다.

문제는요, 시골에 사는 사람들이 외국을 더 몰라요. 부모님들 모두들 농부이죠, 동생이나 형제들 많이 있어서 도와줘야 해요. 그래서 다른 나라로 시집가면 부자 되고, 그래서 부모와 형제들에게 돈 보내줄 줄 알고 결혼하는 거예요(사례 1-6).

이러한 참여자들은 필리핀 여성들이 자기와 전혀 다른 환경과 성격을 가진 사람들을 선택하게 되는 이유는 단지 다르다는 것에 매력을 느껴서라기보다는 자신이 선택한 부분이 자기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으리라는 기대 때문이며, 결혼하고자 하는 상대 남성이 자신의 욕구와 필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다고 기대할 때 국제결혼 가능성은 훨씬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필리핀 여성들의 결혼이주를 선택하는 동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필리핀 가족문화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사회적 역할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필리핀은 익히 아는 대로 양변(bilateral) 친족제도를 가지고 있어서 여성들이 결혼을 하더라도 남성의 부계가족으로 편입되지 않으며 자식들은 부모가 늙거나 생활이 어려울 때에 그들을 부양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 더구나 한국과 다른 것은 필리핀의 경우 아들보다는 특히 딸에 대한 기대나 요구가 더 큰 것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김민정 2007; 정기선 2007). 여성들은 학교를 졸업하면 부모나 형제를 돕기 위해 일하는 것이 자신의 행복이나 결혼보다 우선된 것이고, 부모에 대한 의무를 더욱 중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참여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보면 필리핀 결혼이주 여성이 결혼을 통해 본국의 가족을 돕고자 하는 것은 자국의 경제적 상황과 함께 필리핀의 가족제도가 갖는 고유한 문화

특성이 여성들로 하여금 강압이나 외재적 동기 때문이 아닌 내재적 동기에서 한국남성과 결혼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2. 모국이 가난하단 이유만으로: 진실과 상관없는 강자와 약자

결혼이주 여성들이 겪는 한국 결혼생활 이야기는 곧 자신이 익숙했던 생활환경이 아닌 다른 새로운 문화 속에서 생활하면서 부딪치는 것으로 주로 가족관계에서 발생하는 현상들에 관한 것이었다. 즉, 자신이 태어난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 거주하는 경우, 자신이 생활해 온 이전의 환경을 떠나 새로운 사회에 부딪히게 됨으로써 여러 가지 문화적 차이와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김오남 2006)에 대한 인식이 결혼생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참여자들의 결혼생활 경험은 관련 대상자들에 따라 남편에 대한 이야기, 시부모님에 대한 이야기, 자녀에 대한 이야기 등에 따라 분류할 수 있었다. 특별히 필리핀 결혼이주 여성들은 결혼 전 기대했던 남편의 모습과 다른 실재를 보면서 놀라게 되나, 그러나 진실여부와 상관없이 출현하는 출처불명의 남편의 권위적 태도나 시집살이를 통해 어려움의 현상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주여성들의 출신국이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겪게 되는 비인격적인 대우는 비록 직접적으로 나는 한국 사람이니까 우월해라고 표현하지는 않으나 ‘필리핀 너네 나라’, ‘넌 필리핀 사람이니까’, ‘못사는 나라’라는 편견이나 국가 간의 경제적 우위 관계에 대한 선입견이 출처불명의 힘의 형태로 변형되어 가족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양복 넘어 감춰졌던 남편 본 모습: 사실과 달라 놀라요

연구참여자들은 결혼 전 남편과 단 한번 만나고 결혼했다는 여성이 5명, 두 번 만났다는 여성이 5명, 세 번 만나고 결혼했다는 여성이 1명 그리고 1년간 교제하다 결혼했다는 여성이 1명이었으나 공통적으로 한국 남성의 실제 모습에 대하여는 잘 몰랐다고 털어놓았다. 그리고 연구참여자들의 전체 면담의 대부분은 남편에 관한 이야

기로 할애하였다. 참여자 12명 중 8명은 종교단체나 주변 소개를 통해 결혼한 경우이고, 3명은 결혼중개를 통해 결혼하였고, 한 명은 연애결혼을 한 경우였다. 그 중 연애결혼을 한 이주여성을 제외한 11명의 경우는 주변에서 소개한 내용만 믿고 결혼하였으나 한국으로 와 남편의 집에 들어서야 이제껏 전해들은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였다. 즉 필리핀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에 잘 살고 싶어서 시집왔으나 한국에 도착해 남편의 적나라한 면모를 보게 되면서 실망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목적했던 ‘필리핀에서보다 잘 살아보겠다’는 기대가 무너지고 본국의 가족을 도와주기는 커녕 정작 앞으로의 생계조차 걱정해야 해야 하는 상황을 직시하게 되면서 그로 인해 절망감을 느끼게 된다고 하였다.

우리나라 시골에 사는 사람들이 다른 나라 잘 몰라요. 한국사람 너무 모르고 왔어요. 그냥 소개해주면 그저 믿고 와요. 집도 있다. 돈도 많다.. 그러는데 와보면 다 달라요. 집도 없고 직장도 없구, 처음 결혼하는 사람도 아니고 다 달라요... 문제는요, 너무 달라요. 그리고 보통 한국 사람에게 시집오는 사람들은 통일교 소개를 통해서 결혼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통일교 믿는 사람들은 도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마닐라에서 살던 사람들보다 시골 사람들이 더 많이 통일교를 믿어요. 이렇다 저렇다 얘기 많이 듣고 오지만 실제로는 너무 모르고 오고 와보니 너무 달라서 놀라요. 거짓말한거죠(사례 2-1).

위의 내용은 김희주와 은선경(2007)의 연구서와 같이 연애기간을 거치지 않고 단체기관을 통해 결혼한 이주여성들이 공통적으로 소개된 것과 실제가 다르다는 내용과 일치하는 내용이다. 결혼중개단체나 소개를 통해 결혼한 참여자들은 한국에 도착할 때까지 남편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단지 서류로 보았던 것이 전부이며 그 내용이 라고 해도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번듯한 직장이 있고 가정적이고 성실한 남성이라는 이야기만 믿

고 결혼하러 오지만 이러한 소개된 내용 모두가 거짓이라는 것을 한국 남성과 결혼생활을 시작한 후에 깨닫게 되는 것이다. 두 사람이 들어가기에도 비좁은 월셋 방, 실내 화장실도 없어서 실외 공동 화장실을 사용해야 하는 열악한 거주환경에 당황하고 좋은 직장에 다닌다면 남편은 무일푼의 일용직 노동자이거나 실업 상태에 놓여있어 그에 대한 충격과 절망, 그리고 좌절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현실적인 모습과 동떨어진 한국남성의 본 모습, 사실과 달라 놀라게 되는 남편의 현실적인 모습에 연이은 그들의 결혼생활의 어려움의 현상은 이주여성의 표현대로라면 마치 ‘재앙’과도 같았다고 표현하게 하고 있다.

한국 남편에서 아주 많이 실망했어요.. 표현하자면 실제와 다른 한국 모든 생활은 재앙과도 같았어요(사례 2-2)

하지만 그러한 남편의 거짓된 모습과 무관하게 첫째, 가난한 나라에서 온 결혼이주여성이란 이유와 둘째, 한국이 필리핀보다 경제적으로 잘 산다는 이유만으로 남편과 시부모로부터 부당한 대우나 강자와 약자라는 힘의 위계적 관계로 변형되고 있어 심리적 고충에 따른 제반 현상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진실과 관계없는 출처불명의 힘: 마치 자기는 왕, 나는 종인 줄 알아야

참여자들은 한국 남성과 결혼한 후 한국 남편들이 필리핀 남성들과 너무도 다르다는 사실에 또 한 번 놀라워한다. 필리핀의 가족관계는 매우 개방적이고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지위와 역할을 공유하기 때문에 가사분담이나 가족 행사, 문제 해결에 남성과 여성이 차이가 없다. 필리핀의 부부 문화는 부부가 공동으로 가사일을 하며 자녀 양육도 공동의 책임일 뿐더러 오히려 가정에서의 어머니는 집안의 중요한 결정권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Rochas & Rochas 2006). 그런 그녀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 남성의 권위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에 당혹해하고 놀라워하는 일은 오히려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그러한 한국 남성을

필리핀 이주여성들은 표현의 차이는 있으나 ‘마치 왕인 듯 행세’하고, ‘손하나 움직이기 싫어하는 남편’, ‘이기적’이고, ‘마치 나를 종처럼 부리는 한국 남성’ 등으로 표현하였다

한국 남편은 자기가 마치 King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왕이고 너는 종이야, 우리나라 매우 좋고 필리핀 너희 나라는 못사는 나라 안 좋아, 넌 바보야, 한국 사람인 나만 잘해... 넌 못해 라는 것 같아요(사례 2-3).

한국 남자들은 너무 자기 중심적이예요.... 그리고 한국 남자들은 술꾼 남편이 많아요. 또 가족에 대한 책임이 없어요. 거기다가 남편 자신보다 부인인 내게 너무 요구가 많아요. 자기만 보라고 그래요... 이것 하지 마라, 저것 하지마라, 친구 만나지 마라, 나가지 마라, 전화하지 말아라... 그래요(사례 2-4).

더욱 절망적인 것은 이러한 남편의 잘못된 습관과 태도는 마치 남편 뒤에 힘있는 배경을 가진 사람과 같이 행동한다는 인상을 준다는 것이다. 그 힘이 어디로부터 근원하는지 모르지만 이주여성에게는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에게 불여진 ‘가난한 나라 여성’이라는 라벨링을 떼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남편의 권위적인 습관 역시 평생 고치지 못할 것 같다는 데 더욱 심각한 어려움의 현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외에 참여자들이 꼽은 살면서 고쳐지지 못할 것 같은 습관들로는 ‘아내를 돕지 않는 태도(8명)’와 결혼 전에 가졌던 ‘도박(3명)’, ‘폭음(5명)’, ‘가정과 아내를 돌보지 않는 무책임감(5명)’ 등을 꼽았다. 그 중 도박은 이혼한 가정의 남편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난 습관이었다.

친구들 이야기 들어보면 한국 남자들 진짜 안 도와줘요, 필리핀 남자들은 집안 일 잘해요.... 그리고 그냥 재미로 하는 것 말고 카드 하면서 돈 내는 거 그것 했어요...(도박이라고 힌트를 주자) 네! 도박이요, 결혼하고 보니 남편은 도박습관이 있었어요. 그런데 남

편은 일도 하지 않았어요.... 한국 남자들은 나쁜 일도 마치 자기가 하는 일은 다 옳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사례 2-5)

또한 필리핀 여성들의 결혼생활에서 가난 다음으로 참기 힘들어하는 것은 남편의 인격 때문이라고 하였다. 시시 때때로 변하는 남편의 기분과 참지 못하고 화를 내거나 물건을 내던지는 행동으로 당황하게 되고 이미 동네에서도 남편의 그런 성격을 다 알 정도로 심각한 인격의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그런 결혼생활을 마치 지옥과도 같다고 표현하였다.

3) 필리핀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힘 없는 노예같은 삶

참여자들은 결혼 초기에는 낯선 한국에 대한 긴장과 결혼 생활에 대한 적응을 하기도 전에 집안에서 낯선 또 하나의 낯선 문화집단을 만난다. 그것은 시어머니를 통한 시집살이 문화이다. 이주여성들은 한국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확대가족의 도움을 정작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치 않는 혹은 허락하지 않은 ‘국제결혼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환영 받지 못하고(6명)’, ‘집안의 불청객 취급(2명)’을 받는 것이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주여성들이 진심으로 그들과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그것이 잘 통하지 않는다는 것(4명)’이다. 자신들이 ‘가난한 나라에서 보다 잘 살기 위해 한국으로 시집왔다(11명)’는 사실 자체가 가족들에게 ‘힘없고 나약한 존재(12명)’로 전락시켜 버리고 그로 인해 가족들이나 시어머니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은 이주여성 자신이 ‘노력해도 안되는 장벽(6명)’과도 같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 중 유일하게 연애결혼을 한 경우(1명)도 현재는 이혼한 상태로 혼자서 한국인 딸 아이 둘을 양육하고 있다. 이 참여자의 경우에는 한국이 아닌 타지에서 두 사람의 신혼은 꿈과 같았다고 회상하였다. 하지만 한국에 들어와 겪게 되는 시집살이는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악몽과도 같은 생활로 면담 내내 시댁 식구들에 대한 생각만으로도 고통스러웠으며 기타 참여자들도 ‘시달림(2명)’, ‘종이나 일꾼, 노예처럼’(4명)

이란 표현으로 출신국이 가난하던 이유만으로 가족들 앞에 힘없는 존재로 전락하였다고 언급하였다.

시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시달림을 받는 일은 너무 너무 참기 힘들었어요. 그래도 아들의 아내인데... 우리 집이 가난하다고 나를 사람 취급을 안했어요. 그리고 남편은 외국에서 살 때는 좋은 남편이었는데 식구들과 같이 살 때는 달랐어요... 마마보이에다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는 남편 때문에 힘들었어요..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 살기 적응하기도 힘든데 도와주진 않고 시어머니하고 적응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사례 2-6)

그 외 참여자들이 시집살이를 통해 경험하게 되는 좋지 않은 일들은 인간 경험의 나쁜 일 모두를 모아 놓은 듯한 고녀의 말들을 쏟아내었다.

생각해보면 다른 것보다도 시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은 지옥과도 같았어요. 난 노예 같다고 생각했어요. 할 수 있는 일은 일하고 돈 벌고 아기 낳는 일이었어요... 나는 가끔 죽음을 생각하기도 했어요. 나는 마치 새장에 갇힌 새와 같다는 생각도 했어요. 새장에 갇힌 새가 높이도, 멀리도, 못 나는 것처럼 아무것도 선택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었죠. (사례 2-7)

가족들이 나를 이해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고 싫어해요. 그냥 내가 필리핀 사람이니까 싫어해요. 동네 사람들하고 내 얘기 나쁘게 해요. 내가 못 알아듣는 줄 알고 이야기 하지만 난 다 알아들어요. 시댁사람들은 한국 여자랑 결혼하지 왜 외국 사람하고 결혼했냐고 나를 대놓고 싫어했어요(사례 2-8)

남편과 결혼생활에 적응하고 한국인 아내로 살아가기 위해 넘어야 할 많은 장벽 중에서 결국 가정 안에 절대적인 적군이 있는 셈인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노력해도 필리핀에서 시집왔다는 것은 바꿀 수도 없고 극복도 어렵다는 것이

절대적인 절망감으로 표현되고 있었다. 결국, 필리핀 결혼이주여성의 한국 결혼생활 속에는 남편과 버금가게 영향을 미치는 존재로 시어머니나 한국의 시집살이 문화가 존재하는 것이다. 필리핀 이주여성들은 단지 필리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능력과 관계없이 힘없는 존재로 전락해 버려 남편과 가족들로부터 어려움의 현상을 겪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남편의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인 태도나 낮은 시집살이 문화는 결혼을 통해 마땅히 존중되어야 할 평등한 가족관계 구성을 어렵게 하므로 국가 간 왜곡된 경제적 위계가 가족관계에 영향을 미침으로 원만한 가족 관계 형성을 어렵게 하는 장애요인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필리핀이라는 출신국을 결혼이주여성의 자력으로는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상황이라는 점에서 더욱 이주여성의 입지를 어렵게 하는 것이다.

3. 한국에 대한 새로운 경계 세우기: 한국 사람으로 vs 필리핀 사람으로

참여자들은 결혼 후 국적과 관련하여서는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결혼이주 여성(7명)과 그의 자녀(6명)의 국적관계 및 결혼생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의 현상으로 인하여 한국남성과 이혼하거나 별거 중인 결혼이주여성(5명)과 그의 자녀(9명)들의 국적관계로 분류할 수 있었다. 먼저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이주여성의 경우에는 한국인의 아내가 되어 한국 국민으로 제2국적을 취득하고 살아가고 있었으며 그의 자녀들 역시 한국인으로써 한국인 정체성을 추구하며 성장하고 있었다. 하지만 결혼상태가 안정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이혼이나 별거 중인 이주여성의 경우에는 이전에는 한국인의 아내이었으나 이제는 필리핀 사람으로 회귀하거나 그의 자녀들의 경우도 한국인으로 출생하였으되, 필리핀 사람도 한국인 사람도 아닌 국가 정체성 혼란의 위기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한국인으로써의 나의 결혼생활: 한국인의 아내되기 위해 노력하고 참아오

참여자 12명 중 7명은 결혼생활 중 여전히 문화의 차이나 어려움의 현상이 있지만 한국인 아내 되기 위해 참고 노력한다고 하였다. 이들은 결

혼 후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며 앞으로 한국인 아내로서 노력한다면 좀 더 잘 할 수 있을 것이고 예상하였다. 그리고 한국이란 나라도 사랑할만한 매력이 있는 나라이고 언제든 일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이 그들에게는 필리핀에 비교하면 좋은 나라로 비춰지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그간의 많은 어려움의 현상 중에서도 한국인 아내로서 결혼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자 노력하는 이유 중 하나는 자녀 때문이라고 하였다. 아이 성장을 위해 좋은 가정이 필요하므로 좋은 가정을 이뤄 잘 살고 싶으며 그런 면에서 이제 한국은 제 2의 모국이라 생각한다고 하였다.

이제 여기가 내 나라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참아요. 하지만 제사나 시댁문제, 아이 키우는 문제, 두 나라 문화 차이 때문에 겪게 되는 어려움들이 종종 힘들게 해요(사례 3-1)

나는 필리핀도 한국도 사랑해요. 그러나 지금은 필리핀은 잊으려고 노력하는 나라예요, 비록 쉽지는 않아도.. 그리고 언젠가 우리 남편이 은퇴하는 때 쯤 되면 남편과 함께 필리핀으로 돌아가 살고 싶어요(사례 3-2).

참여자들의 이러한 입장은 필리핀 이주 여성들이 국경을 넘어 한국가정을 이루고 제 2의 모국으로써의 한국인의 정체성을 갖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이주여성들은 한국 남성과의 결혼 후 일정기간을 경과하고 한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결혼이주여성 자신이나 자녀의 한국 국가 정체성 형성을 위한 새로운 경계를 세우게 되는 것이다. 이들의 경우는 비록 결혼생활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한국인 아내로 살아가길 원하는 이주여성들로서 이제 필리핀은 돌아가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고 한국이란 나라가 그들에게 아직은 코리안 드림(Korean dream)을 펼칠 수 있는 희망의 여지가 있는 나라여서 ‘여기가 내 나라’라는 마음으로 살아보겠다는 경우이었다.

2) 우리 애는 한국 사람이예요

참여자 12명 중 10명의 참여자들은 한국 남성과

결혼하고 한국 아내가 되어 행복했고 즐거웠던 순간으로 아기를 낳고 엄마가 되었던 순간의 기억을 꼽았다. 곧 결혼이주여성들은 결혼 후 한국 사회에 대한 정착과 한국 남편에게 적응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현실에서 한국 국적의 자녀를 낳게 되고 그로 인해 남편으로부터의 신뢰를 얻게 되므로 결혼 이주 여성들에게 있어서 출산과 엄마가 된다는 의미는 남다르다고 할 수 있다. 아기를 낳는다는 것은 자신과 남편의 관계를 이어주는 중요한 연결 끈 노릇을 하고, 한국 생활의 실망과 갈등을 극복하고 결혼을 안정시키는 역할(구수연 2007; 윤형숙 2004)을 한다는 점에서 결혼생활 가운데 출산의 경험은 결혼이주 여성에게는 매우 극적인 경험이라는 것이다. 이들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은 출생 후 한국 국적을 자동적으로 취득하게 되며 필리핀 결혼이주 여성 스스로도 자신이 한국아이의 엄마라는 사실을 자랑하듯 말한다.

결혼생활에서 행복했던 기억? 월세 살다가 전세 살게 될 때 행복했어요. 그리고 아이 낳았을 때요.. 그 때 내가 엄마가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기뻐어요(사례 3-3)

가장 행복했던 시간은 한국 와서 눈 내리는 것을 봤을 때하고 필리핀보다 부유해서 행복했어요. 하지만 가장 행복했던 것은 그래도 첫 아이를 낳았을 때예요(사례 3-4)

한국에 와서 먼저는 음식이 먹기 힘들었어요. 남편은 필리핀 음식 먹지 말고 친정에 전화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말도 안통하고 친구들도 만나지 못하게 하고 모든 것이 금지되었어요. 생각하기도 싫지만 사실 아이들 때문에 참고 살았어요... 우리 아이는 한국 아이잖아요(사례 3-5)

필리핀 결혼이주 여성들은 저마다 한국 남편과 결혼하고 가장 어려웠던 점 중 한 가지가 언어소통으로 인한 어려움의 현상이었다. 이것은 이주 여성 스스로 한국말을 못해서 겪게 되는 일이지

만 남편 또한 영어를 전혀 하지 못했기 때문에 손짓 발짓하면서 이야기를 하게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언어나 문화격차로 인한 많은 스트레스조차 자녀를 통해 얻게 되는 기쁨이 더 큰 위로가 되므로 필리핀 이주여성의 엄마됨은 한국인 아내로서의 역할을 유지하게 한다는 점과 한국인 자녀의 엄마가 됨은 이주여성의 결혼생활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의미로 자리하였다.

남편과 결혼하여 한국에서 살게 되었을 때 나는 한국에 적응하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처음에는 언어가 잘 통하지 않아서요. 하지만 말이 통하지 않는 것은 큰 문제는 아니에요. 손짓 발짓하면서 할 수 있어요. 난 지금은 임신 중이라서 집에만 있어요. 곧 아기를 낳게 되고 엄마가 되요. 원래 필리핀에 있을 때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되려는 꿈이 있었는데 그 꿈은 접고 남편과 함께 한국에 살게 되면서 어느 정도 여러 가지로 만족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남편도 아이를 많이 기다려요(사례 3-6)

이러한 결혼이주여성의 생각을 통해 볼 때 이들 가정의 한국인 자녀들이 한국민의 정체성을 가지고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이주여성들의 기대와 요구를 이해하고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 체계가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4. 다시 필리핀 사람으로: 죽음과 이혼의 경계에서 한국인 아내 포기하기

참여자 12명 중 한국 남성과 결혼관계를 유지하지 않고 이혼이나 별거상태의 5명의 이주 여성들이 결혼 생활에서 유일하게 주체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이혼’이라는 결정이었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들은 이제 한국인 아내 역할에 대한 어려움의 현상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졌다고 느끼는 참여자들로서 국적에 있어서는 필리핀 국적으로 회귀되거나 그의 자녀들도 이주여성의 이혼 이후의 결혼가족관계에 따라 한국국가 정체성 형성에 혼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이혼한 연구참여자들은 한국 아내가 된

것을 후회하거나 결혼을 되돌리고 싶다는 생각을 넘어 서서 더 이상 참기 힘들다고 생각 할 때 품은 생각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 첫째는 ‘그냥 자다가 죽으면 좋겠다’와 같은 자연적인 죽음을 생각하는 경우이거나 아니면 필리핀 본국이 라면 결코 이뤄질 수 없는 ‘이혼’을 생각하는 것이다. 필리핀은 천주교가 국교이어서 이혼이 인정되지 않는 나라이다. 그래서 한번 결혼하면 영원히 함께 사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한국 사회에서의 상황은 다르다. 본 연구참여자 12명 중 4명은 이미 이혼하였고, 한 명은 별거 중으로 지난 6년간 남편을 한 번도 본적이 없는 상태이므로 전체 참여자 중 5명이 이미 편모가 되어 한국 국적의 아이들을 혼자 키우고 있었다.

1) 남편이 “너 나가, 너네 나라로 가” 라고 말한 것처럼 : 다시 필리핀 사람으로

한국 남성과 결혼하여 기후와 음식과 거주생활 모든 것이 필리핀과 차이가 있다 하여도 결혼기간동안 그렇게 한국인 아내 되기를 위해 애썼지만 이제 한국남성과 결혼생활 끝에 마지막 기회로서의 이혼은 필리핀 이주 여성에게 하나의 희망이 되어버렸다.

전에 남편은 가끔 맘에 안 들면 너 나가.. 너네 나라로 가” 라고 협박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닌 남편에게 그런 이야기 너무 많이 듣고 살았어요. 남편만 믿고 여기에 왔는데 하루아침에 기분 나쁘다고 나가라고 해요. 자기는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면 된다고...(사례 4-1)

결국 말이 씨가 된다는 속담처럼 그렇게 말하던 당사자들은 그들의 바람대로 몇 년 지나지 않아 실제 상황이 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결혼을 위해 비행기에 몸을 싣던 그 핑크빛 설레임과는 정반대로 돌아서서는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사람으로 남남이 되어 결혼생활의 막을 내리고 한국인이지만 필리핀이기도 한 경계인(境界人)의 기로에 서게 된 것이다.

생각해보면 나의 결혼생활은 정말 힘들었어

요. 다른 것보다도 시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은 지옥과도 같았어요. 나는 가끔 죽음을 생각하기도 했어요. (사례 4-2)

너무 살기 힘들어 그냥 잠자다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간혹 너무 힘들 때는 죽음을 생각하는 거죠...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혼한 거죠(사례 4-3)

그간 양심상 이혼이 허락되지 않아 참고 살았고, 한국에서 살아남기 위해 한국말을 배우기는 했어도 주변에 도움을 주는 사람들조차 남편과 똑같은 한국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았다고 하였다. 그래서 자신의 불행한 결혼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도 하였다. 자신들을 도와준다는 사회단체들도 따지고 보면 모두 남편과 같은 한국인이어서 도움을 준다 해도 모두 진심이라고 여겨지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 세월을 보내다 결국 한국에 와서 죽음까지 생각하게 되는 절망 속에서 자기 인생을 위해 유일하게 주도적인 결정을 내린 것이 있다면 이혼하자는 제안이었다. 그로 인해 한국인 되기를 포기하고 필리핀 사람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2) 한국 아빠도 책임지지 않은 우리 아이:
한국인 정체성 혼란**

필리핀 이주여성들은 공통적으로 정상적인 결혼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이주여성이나 이혼 후에도 한국인 자녀 양육에 대한 의지는 매우 강하였다. 그러나 이혼이나 별거 상태에 있는 여성의 경우 자신의 한국인 자녀에 대해 첫째, 한국 사람으로 보란 듯이 키워보겠다고 생각하는 3명의 이주 여성과 둘째, 자신도 살기 힘들어 자녀를 거둘 수 없어 필리핀으로 보내버려 이후 어찌 성장하는지 별반 관심이 없다는 2명의 이주여성으로 나뉘어졌다. 후자의 경우 이혼 후 이주여성의 결혼관계에 따라 한국 아동의 국가정체성 형성은 물론이고 그들의 성장과정 역시 위태로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혼 후 결혼관계에서 자유로워진 필리핀 이주여성이 필리핀인도 한국인도 아닌 제3

의 국적의 새로운 남성과 결혼관계가 형성되는 상황에서는 한국 남성의 자녀이되 한국 아동으로써의 국가정체성은 전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즉, 더 이상 한국인도 필리핀인인기를 보장하지 못할 국적 미상의 아동으로 전락할 위기를 맞게 되는 것이다.

이혼 할 때 남편은 아이를 데려가고 싶지 않다고 해서 내가 맡았고 아이는 필리핀으로 보냈어요. 하지만 내가 직장을 구하고 방을 얻고 나서 두 아이 중 한명을 먼저 데려오고 지난 해에도 마저 데려와서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어서 한 칸 방에 살지만 초등학교 다니는 첫째 아이가 영어를 잘해서 고마워요 (사례 4-4)

이혼하고 아이는 필리핀에 보냈어요. 이혼하고 혼자 살기도 힘들고 그래서, 아이는 지금 필리핀에 살고 있어요. (언제 다시 한국에 오는지 묻자) 글썄요 다시 데려오고 싶은데 언제일지는 몰라요(사례 4-5)

돈 하나도 없이 이혼했어요. 아이를 남편이 책임지지 않았어요. 현재 이혼하고 혼자 두 아이(한국국적)를 키우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임신 중인 아이는 한국 아이는 아니예요 (사례 4-6)

실제로 최근 한국인 남편의 구타, 알코올중독, 방임 등으로 인해서 농촌으로부터 도망 나온 연구참여자는 합법적인 근거를 들어 이혼을 하고 제3국 아시아 출신 이주 근로자와 다시 합법적인 결혼을 준비하고 있다. 결혼생활 10년을 넘긴 이 여성은 이미 한국인으로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한국 국민이다. 하지만 이전에 한국 남성사이에서 낳은 자녀는 한국 국적을 가졌을 뿐, 한국 아빠나 필리핀 엄마도 양육을 포기한 채 필리핀에서 자신의 국적이 어딘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한국 국적을 가진 결혼이주 여성이 이혼한 후 한국국적 자녀의 부모로써 제 3국적의 이주자와 합법적

인 결혼을 하게 된다면 이주여성의 부부, 자녀 간의 국적관계는 더욱 복잡한 가족체계를 갖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의 한국 결혼과정과 결혼생활은 단지 사회 주변부에 있던 한국 남성들이 외국 여성들을 결혼 상대자로 데려오고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루는 그런 단순한 과정이기보다는 실제 상황은 보다 복잡한 가족 관계가 얽혀져 있으므로 결혼이주여성이 심리적 안정을 얻고 건전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가 지원체제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IV. 결론 및 제언

2007년, 국내 체류외국인 100만 시대를 맞이하는 하는 현 시점에서 한국 사회는 한국인의 아내가 되기를 작정한 결혼이주여성들에 대한 적극적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시점에 놓이게 되었다. 곧 결혼이주여성의 건전한 결혼생활을 위한 지원뿐 아니라 가정생활의 어려움의 현상으로 인하여 이혼한 이주여성에게 남겨진 과제는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할 적절한 시기에 도래해 있다. 이러한 사회적 과제에 대해 본 연구는 필리핀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생활 현상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이를 기초로 결혼 이주여성의 가정생활에 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필리핀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이주의 동기와 결혼생활의 현상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에 대하여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필리핀 결혼이주 여성이 한국인 아내 되기를 결심하게 된 배경에는 잘 살고 싶다는 욕망과 본국의 가족을 돕고 싶은 동기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곧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게 되는 계기는 여러 경로가 있지만, 낯선 이국 땅에 와서 살기로 결정하게 되는 과정에는 한국의 남성에 대해 경제적 기대를 갖게 되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국제결혼이란 것이 결코 인간적인 배려만으로 이뤄지지 않으며, 적절한 서로간의 교환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위한 전략이 구사되는 살아있는 문화 현장(조성원 2004)이며, 배우자의 선택과정 조차 보상추구의 과정과도 같다는 주장과 일치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Scanzoni & Scanzoni 1981). 또한 여성들이 결혼을 위해 자신의 위치에서 선택할 수 있는 여러 사람 중에서 자신에게 최대한의 만족을 줄 수 있는 한 사람을 고르는 과정에서 현재의 파트너가 미래에 만날 수 있는 다른 파트너들보다 낫다는 판단으로 배우자를 선택하게 된다는 Olson과 DeRain(1994)의 주장이나 필리핀 여성들이 결혼을 통해 부모님과 가족들을 원조하리란 기대를 갖고 한국 남성과 결혼하게 된다는 김희주와 은선경(2007)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이러한 필리핀 이주여성들의 결혼에 관한 동기는 필리핀의 양변 친족제도의 특성으로 인해 여성들은 결혼을 하더라도 그들의 부모와 형제를 부양할 책임을 가지며 아들보다는 특히 딸에 대한 기대나 요구가 더 큰 것이 한국과 다르다는 김민정(2007)과 정기선(2007)의 지적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필리핀 여성들은 자신의 행복보다 부모와 형제에 대한 의무를 더욱 중하게 생각하는 경향으로 인해 결혼이주를 경제적 가난을 극복하는 하나의 대안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Constable 1997). 그러므로 필리핀 이주여성들의 결혼에 관한 동기는 외부적 강압이나 외재적 동기 때문이 아니라 자국의 문화적 특성과 결혼이주 여성의 행동에 대한 주체적 내재적 동기를 통해 한국남성과 결혼하게 됨을 나타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둘째, 필리핀 결혼이주 여성이 결혼생활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의 현상은 크게 한국과 필리핀의 국가 간의 경제적 우위관계가 가족관계에서 불합리한 위계로 영향을 미침으로 결혼이주 여성들이 어려움의 현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결혼 초기에는 한국남성이 결혼 전에 감춰졌던 진실의 모습을 볼 때 사실과 달라 놀라지만, 이후 결혼생활에서는 진실과 관계없이 단지 가난한 나라에서 온 결혼이주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평등한 부부관계나 가족관계 형성이 어려움의 현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양 국가 간의 경제적 우위가 부부 간 왜곡된 위계로 작용해 결혼생활을 통해 나타나는 한국인 남편의 마치 왕인 듯 착각하는 태도나 평생을 살아도 결코 고치지 못할 것 같고 노력해도 극복할 수 없는

낮선 문화들로 시집살이의 어려움의 현상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과 필리핀 양 국가 간에 이루어진 결혼관계에 국가배경이 힘의 위계로 변형된 모습으로 자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결혼이 상대 배우자의 사회적 경제적 가치가 충분히 고려되어 이루어지는 사회행위라고 볼 때 출신국가가 다른 부부관계에서는 동일국가 출신 부부의 결혼생활과는 또 다른 위계가 가정 내 존재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필리핀 결혼이주 여성의 일상적인 결혼생활은 결과적으로 가족체계 내의 한국 국가정체성 형성의 안정성 혹은 정체성 위기 요인으로 이어져 이주여성이나 그 자녀의 존재감과 연관된 실제적 어려움의 현상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곧 국제결혼 가정의 구성원들은 한국 남성과 결혼 후 2년 기간의 결혼생활을 지속한 후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만 결혼 생활 동안 이주 여성 스스로 한국인 아내로서의 역할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지속적으로 한국인으로 살아가게 되거나 아니면 결혼생활로 인한 어려움의 현상이 이혼으로 이어져 결국 본래 필리핀 국적으로 회귀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과정은 필리핀 본국에서 이혼이 일상적이지 않은 사회 규범이라는 점 때문에 이혼 결정은 결혼이주여성이 경험하는 어려움의 절정과 같은 현상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그들의 결혼생활 중에 태어난 자녀들이 한국인이라는 것은 이주 여성들의 희망과 기대로서 자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부정적인 경우 한국 국적의 자녀들은 한국 아버지가 양육을 포기함으로써 국적은 한국 국적이되 필리핀 편모슬하에서 양육되거나, 여건이 좋지 않은 경우 필리핀에서 언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지 기약 없는 존재로 남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 사회의 급속히 증가하는 국제결혼 현상에 따라 한국사회가 궁극적으로 사회 통합과 동질화를 추구하는 듯하나, 국제결혼 가정의 한국국적의 자녀 성장과정까지 주의가 미치지 못함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어서 국제결혼 가정의 가족 및 친족의 범주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아울러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생활을 통해 형성되는 국적의 재경계화나 국가 경계의 모호함이 한국 사회 내 새로운 위기요소로 작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국제결혼 가정의 위기 요인에 대한 관리와 아울러 그들의 자녀들이 양육 유기로 이어져 한국국적의 국제적 미아가 출현되지 않도록 경계할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본 연구는 결혼을 통해 한국으로 이주해 온 여성들이 경험하는 결혼생활 현상에 대하여 조명하여 봄으로써 한국 사회 내 이주 여성의 심리적 적응을 돕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결과를 기초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여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남성과 결혼한 필리핀여성들의 결혼생활 현상을 이해하고 한국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가정 지원체계가 필요하며 이들이 일상생활 가까운 곳에서 한국민으로써 동등한 권익을 누릴 수 있는 상담 및 적응교육의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에 대한 기대를 파악하여 한국인 아내로써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고 결혼이주 여성의 갈등과 위기해결을 도울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셋째, 한국 남성과 결혼했으나 부득이한 상황으로 이혼하여 한 부모로서 한국인 자녀를 양육하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실태와 그들의 자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리라 본다. 2005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국제결혼 가정의 이혼율은 전년 대비 25.8%에 이르고 있다(통계청 2006). 이제 결혼이주여성들은 결혼 초기 한국인 아내로서 한국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노력을 하지만 그것에 실패할 경우 그들은 또 다른 한국 내 소수민족의 삶을 살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이해와 관심은 불고(不告)에 한국 가정 형태의 하나로 자리한 국제결혼가정이야말로 향후 다문화 사회나 지역사회생활과 연관된 논의의 중심에 함께 자리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본 연구에 따른 결론은 제한된 필리핀 결혼이주여성을 연구대상으로 연구되었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점을 갖는다.

참고문헌

- 구수연(2007) 어린이집 생활을 통해 본 여성 결혼이민자 자녀와 가정에 대한 이해. *열린교육연구* 12(5), 95-124.
- 김민정(2002) 필리핀 친족의 양면성과 집단 만들기. *비교문화연구* 8(2), 3-36.
- 김민정(2007) 한국 가족의 변화와 지방 사회의 필리핀 아내. *페미니즘연구* 7(2), 213-248.
- 김민정(2007) 국제결혼과 인권: 한국-필리핀 국제결혼과 인권문제. *인권평론* 2, 159-194.
- 김오남(2006) 여성 결혼이민자의 부부갈등 및 학대에 관한 연구-사회문화적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18, 33-76.
- 김희주 · 은선경(2007) 결혼이주여성의 적응을 위한 대처전략에 관한 사례연구: 필리핀여성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35, 357-366.
- 로체스 · 로체스(2006) 필리핀, 지구촌 문화충격 탈출기, 휘슬러.
- 신경립(1997) 질적 간호연구방법.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양순미(2006) 농촌 가족의 변화; 농촌 국제결혼부부의 적응 및 생활실태에 대한 비교 분석: 중국, 일본, 필리핀 이주여성 부부 중심 농촌사회 16(2), 151-179.
- 양혜우(2005) 여성의 이주화와 국제결혼. 빈부격차 · 차별시정위원회 빈부격차 · 차별시정위원회.
- 유철인(1994) 생애 이야기에 나타난 '국제결혼여성'의 삶. *한국사회학회 94년 전기사회학대회* 291-297.
- 유철인(1996) 어쩔 수 없이 미군과 결혼하게 되었다: 생애이야기의 주제와 서술 전략. *한국문화인류학* 29(2), 397-419.
- 윤형숙(2004) 외국인 출신 농촌 주부들의 갈등과 적응: 필리핀 여성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회* 10월, 심포지움 발표문(2004. 10. 16).
- 이혜경(2005) 혼인이주와 혼인이주 가정의 문제와 대응. *한국인구학* 28(1), 73-106.
- 정기선(2007) 경기도내 국제결혼이민자가족 실태조사 및 정책적 지원방안 연구.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 조성원(2002) 외국인노동자와 노동계층 한국여성의 결혼사례를 통해 본 새로운 마이너리티의 형성 및 재생산. *한양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성원(2004) 또 하나의 가족- 이주노동자와 한국여성의 국제결혼. *한국문화인류학회, 제36차, 정기학술대회자료집*.
- 최경호 · 박인철(1986) 현상학적 운동. 서울: 이론과 실천.
- 통계청(2006) 2005년 혼인 이혼 통계 결과.
- 행정자치부(2007) 보도자료: 외국인주민 현황. 행정자치부.
- Constable, N.(1997) *Maid to Order in Hong Kong: Stories of Filipina Worker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Giorgi, A.(1970) *Psychology as a human science*. New York: Harper & Row.
- Lincoln YS, Guba E(1985) *Naturalistic inquiry*. Beverly Hills, CA: Sage Publications.
- Olson DH, DeRain J(1994) *Marriage and the family: Diversity and strength*. Mountain View, Mayfield Publishing Company.
- Pai Y, Adler S(2001) *Cultural foundations of education*. Upper Saddle River, NJ: Merrill.
- Rochas R, Rochas G(2006) 필리핀, 지구촌 문화충격 탈출기, 이은주 역. 휘슬러.
- Scanzoni, D, Scanzoni, J(1981) *Men, Women and Change- A Sociology of Marriage and Family*. McGraw Hill. INC.
- Simpson JA, Campbell B, Berscheid E(1986) The association between romantic love and marriage: twice revisited.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2, 363-372.
- Surra, C, A, Hughes D, K(1997) Commitment processes in accounts of the development of premarital relationship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9, 5-21.
- Tesch, R(1990) *Qualitative Research: Analysis Types and Software Tools*, New York.